장관 치사

“어촌이 풍요로운 삶의 터전이 되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농림수산식품부

평소 존경하는 배평암 회장님을 비롯한 한국어촌어항협회 회원 여러분!

먼저 오늘 뜻 깊은 한국어촌어항협회의 2008년도 정기총회를 맞이하여 초청해 주신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아울러 지난 한 해 우리나라 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맞이한 2008년은 단순히 한 해가 바뀌는 신년이 아니라 참여정부가 끝나고, 새로운 정부가 탄생한 전환기적인 해입니다.

특히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수산부문의 업무가 농림수산식품부로 통합되었으며, 이는 과거를 돌이켜 볼 때 본래의 자리로 돌아 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이러한 새로운 여건을 적극 활용하여 수산업이 변화하는 시대에 맞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힘을 합쳐 최선의 노력을 기우려 나가야 할 것을 함께 다짐하며 아울러 우리의 어촌이 풍요로운 삶의 터전이 되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회원여러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최근의 우리수산업은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습니다.

힘을 합쳐 현재 우리가 처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간다면 더욱 밝은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앞으로 수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전 수산인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특히 한국어촌어항협회가 선봉에 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정부도 이일에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올해 어촌종합개발사업에 잠재력이 높은 어촌을 중심으로 투자하여 생산, 관광, 휴양 및 정주기능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미래형 삶의 터전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어항의 환경친화적 정비와 다기능어항 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울산 정자항 등 2개항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 상반기내에 수립되는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에 따라 국가어항의 신규지정을 추진하는 한편, 기존의 104개 국가어항은 2012년까지 완공하고 지방어항에 대해서도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앞에서 다짐한 바와 같이 어촌어항의 발전을 도모하고 어촌과 어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어촌 어항에 대한 여러분들의 각별한 애정과 노력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총회를 계기로 우리가 처한 어려운 현실을 극복함으로써 경쟁력을 가진 수산업, 풍요롭고 살기 좋은 어촌을 이룩하여 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의 적극적인 노력이 얼마나 절실히 요청되는가를 깨닫고 여러분이 한층 더 진력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한국어촌어항협회 2008년도 정기 총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어촌 어항인 여러분의 행운과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08. 3. 19.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정운천